

또 다시 시작

지난 주 신문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3,500 여개 중 1,000 교회가 넘게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새로 개척한 교회도 300여 군데 되지만 더하고 빼면 700 여 군데 교회가 문을 닫은 셈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전염병의 영향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인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정말 그럴까? 또한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또한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 신학교와 미국의 유학 와서 있는 신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했다. 한국에 신학교는 새로 입학하는 신학생들이 적어지고 또한 미국에 유학 오는 신학생들도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다. 이미 그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다음세대를 짊어지고 갈 인도자들 그리고 미래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상황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일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상황이라서 또 다른 부흥을 꿈꾸며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가? 혼란한 부분이 생긴다.

잠깐 힘이 빠지는 듯 한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마음을 새롭게 잡아본다. 그것이 마지막의 일이라고 하여도 그때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불러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는 것이다. 그 임무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어디든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주위의 들리는 소문은 어둡고 소망 적이지 않게 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세우시고 오레곤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더욱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달려가게 할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명기 5장 32-33절)라고 하신다.

좌나 우에 낙심과 절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오직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고 성도의 삶이다.